

아버지와 아들

이반 투르게네프 원작
브라이언 프리엘 작
이성열 연출



국립극단

SINCE 1950

가을마당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

내용 (재)국립극단에서 관객들의 효과적인 연극 감상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자료는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룹 토론 등 공연 관람 후 수업시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됨

대상 고등학생 이상

목 차

작품소개

- 시놉시스	-----02
- 주요 등장인물	-----03
- 배경분석	-----07
- 키워드	-----09

원작자/작가/연출가 소개	-----12
---------------	---------

토론방향(안)	-----15
---------	---------

시놉시스

익숙한 듯 낯선 일상,

그 속에서 펼쳐지는 갈등, 화해 그리고 엇갈린 사랑

농노해방을 눈앞에 두고 러시아가 사회적으로 요동치던 1859년, 대학을 졸업한 아르까디가 친구 바자로프와 함께 고향 농장으로 돌아온다. 평범하고 조용한 시골 농장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 니콜라이와 큰아버지 빠벨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아르까디를 반갑게 맞이한다. 니콜라이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반기면서도 젊은 하녀 페니치카와의 사이에서 얻은 갓난아이에 대해 아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전전긍긍한다. 아르까디의 대학 친구로 함께 농장을 방문한 바자로프는 전문적인 지식과 확고한 의지, 충만한 자신감을 자랑하는 진보적인 사상가이다. 어떤 형태의 감정 표현도 혐오하는 바자로프는 그의 부모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게 할 정도다. 관습과 실용적이지 않은 모든 행동과 사상을 부정하는 이른바 니힐리스트인 바자로프는 귀족 출신의 이상적 자유주의자로 철학과 예술을 중시하는 빠벨과 사사건건 부딪히며 첨예하게 대립한다. 한편,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격의 안나와 그녀의 여동생 까컴, 숙모인 올가 공주가 니콜라이의 농장을 방문하면서 쉴새없이 엇갈리는 격렬한 사랑이 시작된다.

토론

1. 각색 과정을 거쳐 재탄생한 브라이언 프리엘의 <아버지와 아들>은 이반 투르게네프의 원작과 어떻게 다른가?

활동

- 1-1. 체홉의 <갈매기>에서 주인공의 죽음은 무대가 아닌 인물들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된다. 이처럼 브라이언 프리엘은 원작의 각색을 통해 극적인 장면(바자로프와 빠벨의 결투, 바자로프의 죽음)을 후일담처럼 인물들의 대화로 전달함으로써, 작품의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객이 상상할 몫을 크게 만들었다. 이처럼 주요 사건을 전해 듣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과 그 장면을 직접 무대에서 '재현'하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더욱 연극적인가에 대해 토론해보자.

주요 등장인물

1859년, 러시아 격동기의 아버지들과 아들들

원작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859년이다. 예술을 사랑하며 철학을 논하는 아버지들과 자연과학과 실용학문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세상을 바꾸고자 한 아들들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다. 당시 러시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이 작품 속의 아버지들과 아들들은 브라이언 프리엘의 손을 거쳐 오늘의 무대 위에서 살아 움직인다.

바자로프

혁명을 꿈꾸는 냉철한 사상가

모든 것을 부정하는 니힐리스트로 혁명을 부르짖는다. 시골 의사의 아들로 잡계급 출신이지만,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인 계급으로 부상한 인텔리겐치아를 대표한다.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연 과학만을 믿을 뿐 예술, 철학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정교한 논리를 내세우며 열정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매력적인 젊은이지만 거만하고 독선적이다. 본인의 의지와 달리 안정적 삶을 중시하는 자본가 안나와 사랑에 빠지는 모순을 보여준다. 사랑을 믿지 않던 냉철한 급진주의자가 한 여인을 향한 열렬한 사랑을 고백하고, '축복'과 '친절'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등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는다. 안나에게 거절당한 후 니콜라이의 정부 페니치카에게 키스하는 모순적인 행동은 결국 그를 결투의 장으로 이끈다.

아르까디

니힐리스트 키드

자신과 한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젊은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아버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착한 아들이다. 몰락해가는 귀족 계급의 마지막 후계자로 진보적인 성향을 추구하고자 한다. 대학에서 만난 친구 바자로프의 자유로운 사상에 감명 받아 그의 혁명 사상을 이어가고자 하지만, 극단적인 혁명주의자가 되기엔 자신의 안정된 삶과 가족을 부정할 수 없다. 공교롭게도 바자로프와 동시에 아름다운 안나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만 자신에게 어울리는 사랑을 찾아나간다. 바자로프의 죽음을 애석해하며 계속 그의 사상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그의 마지막 외침은 공허하게 울린다.

빠벨

이상적 자유주의자의 표본

일하지 않고, 책이나 읽으며 세월을 보내는 이상주의자로 1840년대 아버지 세대를 대표한다. 그 어떤 순간에도 교양 있는 태도와 모습을 유지하는데 집착하지만, 모든 것을 걸고 사랑만을 위해 살았던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동생 니콜라이와 달리 빠벨은 일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니힐리스트들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철저한 귀족주의자로 예절과 원칙을 신앙처럼 여기는 빠벨은 자신이 추구하는 귀족주의에 어긋남에도 동생의 두 번째 부인이 될 하녀 페니치카에게 연정을 느끼면서 자기모순에 빠진다. 사상적으로 대립하던 바자로프가 그녀에게 키스 하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정면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바자로프와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결투 후, 바자로프의 솔직한 영웅적 면모를 인정하고, 존경심까지 느낀다.

니콜라이

아들 세대를 이해하려는 아버지

농지경영에는 속수무책이지만 따뜻하고도 너그러운 아버지다. 1840년대 아버지 세대 인물이지만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하인들에게 농지를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젊은 여성 안나에게 농장경영에 대한 신지식을 배우려고 노력한다. 아르까디와 바자로프가 주장하는 니힐리즘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구시대를 대변하는 빠벨 형의 귀족주의적인 태도를 이해하고 맞춰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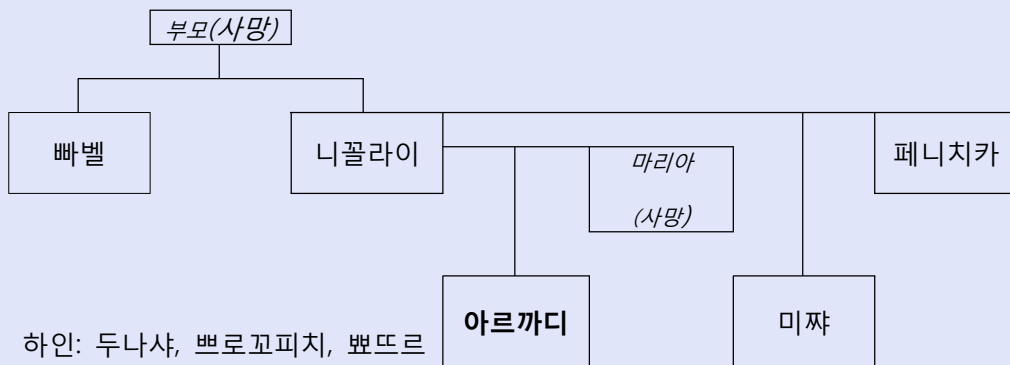
바실리

아들을 숭배하는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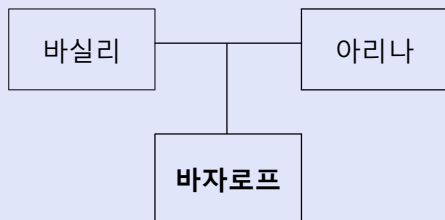
소박한 시골 아버지로 훌륭한 아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의사로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지만 아내와 아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돌보는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이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 누구보다 크지만 어떤 형태의 감정 표현도 혐오하는 아들 앞에서는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아들을 숭배하지만 지나치게 어려워한다.

인물 관계도

[아르까디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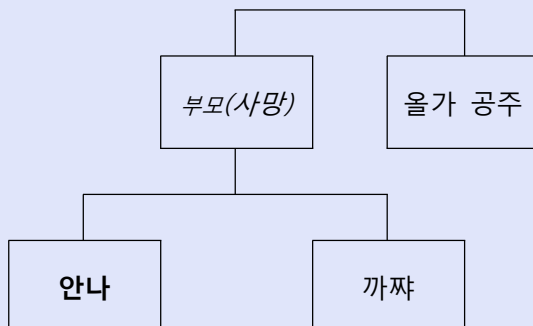


[바자로프 가족]



하인: 찌모페이치, 뵤드카

[안나 가족]



토론

2. 바자로프와 빠벨은 왜 결투에까지 이르게 되었나?

활동

- 2-1. 희곡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지 않지만, 바자로프와 빠벨 사이의 결투는 원작소설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결투에서 빠벨은 바자로프가 쏜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한다. <아버지와 아들> 속에서 결투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 생각해본 후, 서양의 상류계층들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겨뤘던 결투 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보자.
- 2-2. 극의 후반부에서 아르까디는 바자로프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뜻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르까디는 아버지의 농장을 물려받아 기존의 질서를 이어간다. 이처럼 아르까디와 바자로프는 좋은 친구면서도 상황이 달라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친구와 생각이 달라 논쟁하거나 불편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고, 그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보자.
- 2-3.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젊은 지식인, 사랑하는 아들을 대하기 어려워하는 부모, 할 말 다 하는 하인 등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한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혹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등장인물을 선택하고, 그 이유와 함께 발표해보자.

배경분석

19세기 격동의 러시아: 농노 해방과 인텔리겐치아의 출현

16세기에 통일 러시아를 건설한 세기의 폭군 이반 4세는 스스로를 차르로 칭하며 강력한 전제정권을 수립했다. 신으로부터 권력을 내려 받은 황제는 무엇이든 뜻대로 할 수 있었고, 누구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차르의 절대 권력은 노예제 탄생의 신호탄과 다름없었다. 광기어린 황제의 무차별적이며 대대적인 학살이 자행되고 공포정치가 이어지자 외국으로 떠나는 국민들의 수가 늘어났다. 이런 상황을 막고자 이반 4세는 농민들이 소속된 토지에서 평생을 살도록 했는데, 이것이 러시아 농노제의 바탕이 되었다.

이반 4세 이후 황제들에 의해 이어진 농노제는 러시아가 유럽열강과 맞붙은 크림전쟁(1853-1856)에서 패하면서 사라지게 된다. 3년간의 전쟁을 통해 러시아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자신들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처절히 깨닫고 변혁을 통한 근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된다. 이미 농노제는 시대착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대로 유지할 경우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또한, 근대화를 위해 쉼 없이 가동되어야 할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농노의 해방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크림전쟁을 종결시킨 파리조약이 체결된 1861년, 알렉산드르 2세는 마침내 농노 해방령을 선포했다. '위로부터의 혁명'으로 이루어진 농노해방은 19세기 러시아의 역사에 있어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된다.

농노의 해방은 원작자 투르게네프의 삶 속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사실, 투르게네프의 아버지는 넓은 땅을 소유하고 봉건 영주처럼 지배자로 군림하던 투르게네프 어머니의 재력을 보고 결혼했다. 그녀의 허락 없이는 어떤 하인도 결혼조차 할 수 없었다. 이런 어머니가 1850년에 세상을 떠나자 투르게네프는 즉시 집안의 농노들을 해방시켰다.

19세기 중반, 농노제의 종말과 귀족들의 몰락 등 러시아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비귀족 계층들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면서 바자로프와 같은 잡계급의 인텔리겐치아 층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권위와 가치를 부정하는 대신, 과학과 이성에 기대 실증주의와 유물론을 내세우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토론

3. 왜 당시 젊은이들은 바자로프와 아르까디처럼 니힐리즘에 열광했을까?

활동

3-1. 농노 해방을 앞두고 혼돈에 휩싸였던 19세기 러시아의 당시 상황을 연극무대 위에서 표현해야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가장 효과적인 표현 방법(예: 라디오를 통해 당시 상황 중계)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자.

키워드

원작 소설에 체홉의 향기를 더한 희곡

✧ 세대 갈등과 화해

농노해방을 앞두고 사회적으로 크게 동요하고 있던 1859년의 러시아를 그린 원작은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작가 투르게네프의 작품이다. 대표적인 사실주의 소설답게 당시 절정으로 치달았던 세대 간의 갈등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세대갈등의 중심축은 아들세대 바자로프와 아버지 세대 빠벨인데, 이들 사이의 갈등의 골은 깊을 대로 깊어져 결국 결투에 이른다. 한편, 바자로프 가족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차마 아들에게 사랑의 표현조차 하지 못하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불편한 관계 또한 세대갈등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세대별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는데서 오는 소리 없는 갈등인 셈이다. 세대 간의 갈등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성열 연출이 이끄는 이번 공연은 세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의 화해와 용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니힐리즘

니체는 19세기 서구사회에 대한 일침과도 같은 니힐리즘을 내세워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며 새로운 가치의 정립을 주장했다.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니힐리즘이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무'를 의미하는 라틴어 '니힐(nihil)'에서 나온 말이다. 원작 소설 속에서 아르카디는 "니힐리스트는 어떤 권위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아무리 주위에서 존경받는 원칙이라고 해도 그 원칙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러시아에서 니힐리즘이란 개념이 등장했을 당시 니힐리스트들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인정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졌다. 1860년대에 접어들면서 니힐리스트가 혁명적 민주주의자를 의미하게 되었고, 투르게네프는 이런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바자로프라는 인물을 탄생시켰다.

❖ 사랑

프리엘의 희곡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 및 시대 변혁에 대한 첨예한 논쟁뿐만 아니라 인물들 간의 사랑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빠벨과 바자로프는 사상적으로는 단단하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 특히 사랑에 있어서 스스로의 신념과 모순되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아르까디와 까짜의 안정적 사랑, 니콜라이와 페네치가의 계급을 뛰어넘는 사랑 등 다양한 사랑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작가 투르게네프는 소설과 희곡에서 자신을 항상 사랑의 실패자로 그린다고 했는데, 사실 그는 평생 단 한 여인만을 사랑했다. 유부녀였던 그녀 남편의 허락 하에 오래도록 그녀 가족의 일원처럼 함께 지냈다. 바자로프가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사랑에 빠져 무너지게 되는 것이나, 귀족주의자인 빠벨이 유부녀 공작부인, 하녀 출신인 페니치카를 연모하는 등 작가 자신의 예사롭지 않은 사랑의 경험만큼이나 모순된 사랑의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작품 속에서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만큼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간의 사랑, 부정(父情)이다. 서로 다른 듯 닮아 있는 아버지들과 아들들 사이엔 서로의 다름까지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깊은 사랑이 자리해 있다.

❖ 체홉

‘아일랜드의 체홉’이라 불리는 프리엘의 희곡 곳곳에서는 체홉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체홉의 극 구성은 일반적으로 작품의 시작과 함께 사람들이 도착하고, 일상에 변화를 주던 사람들이 떠나면서 끝을 맺는다. 프리엘의 <아버지와 아들> 또한 니콜라이의 집에 아르까디와 바자로프가 도착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바자로프와 빠벨이 떠나면서 끝난다. 한편 체홉의 <바냐아저씨>에 나오는 인물들의 원형을 <아버지와 아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중개혁을 꿈꾸는 의대생 바자로프는 의사 아스트로프의 20년 전 모습과 닮았고, 나이 많은 귀족과 결혼했다가 과부가 된 안나는 엘레나의 5년 후를 보는 듯하다. 또한 극 후반부, 아들 바자로프를 떠나 보낸 아버지 바실리와 아르까디의 대화는 프리엘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쓰여 체홉의 작품 속 남겨진 사람들을 연상케 한다. 프리엘은 <세자매>, <바냐아저씨> 등 체홉 작품을 번역하고, 단편소설을 각색해 <알타 게임>, <극이후>를 집필하는 등 체홉 작품을 많이 다루고 있다.

토론

4. 바자로프와 안나가 이어질 수 없었던 까닭은?

활동

4-1. 작품에 나와 있는 다양한 사랑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바자로프와 안나의 사랑은 개인의 사상과 환경이 반대인 두 남녀의 사랑이다. 열정적 사랑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다양한 현실적 원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원작자/작가/연출가 소개

원작자 소개

자연 풍경과 심리 묘사에 이보다 뛰어난 작가는 없다!

이반 세르게예비치 투르게네프 Ivan Sergeyevich Turgenev
(1818 ~ 1883)

이반 투르게네프는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다. 섬세하고 서정적인 문체로 인간 내면의 미묘한 심리 묘사에 탁월했던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작가로 모파상, 에밀 졸라, 플로베르 등 유명 작가들과 친분을 쌓으며 러시아 문학을 서구 사회에 소개했고, 러시아 고전 작가들 중 가장 서구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귀족의 아들이었던 그는 어릴 적 러시아의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가혹한 농노 제도를 보며 자랐고, 이 때의 경험은 향후 러시아 사회 문제와 역사 문제를 다루는 투르게네프의 주제 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와 아들』은 1862년 발표 당시 러시아 문학계의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 모두에게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대 러시아의 세대 간 갈등과 중부 러시아 자연환경의 서정적 묘사, 등장인물의 생생한 성격 묘사 등으로 '19세기의 가장 훌륭한 소설'이라는 평을 받았다. 투르게네프는 1860년 이후 러시아 문학계에 엄격한 검열이 시행되면서 프랑스로 건너갔고, 이후 유럽에서 여생을 보냈다.

주요작품

사냥꾼의 수기 · 루딘 · 귀족의 집 · 첫사랑 · 아버지와 아들 · 연기 · 처녀지 외 다수

작가 소개

체홉보다 더 체홉적인 작가

브라이언 프리엘 Brian Friel (1929 ~)

아일랜드의 역사와 개인의 정체성 문제를 다룬 일련의 희곡으로 유명한 브라이언 프리엘은 생존하는 영어권 극작가 중 손에 꼽히는 대가이다. 일상을 토대로 눈물과 웃음을 자아내는 작품을 쓴다는 점에서 체홉과 유사하며, '아

일랜드의 체홉', '아일랜드의 목소리'로 불린다. <아버지와 아들>은 투르게네프의 소설에 체홉의 연극적 향기를 담으면서도 자신만의 색을 입혀 재창작했다. 영국의 로렌스 올리비에상과 토니상, 뉴욕 드라마 비평가협회 최우수 희곡상 등을 수상했다.

주요작품

내 안의 적 · 필라델피아, 내가 여기 왔노라 · 번역 · 아버지와 아들 · 역사 만들기 · 루나자에서 춤을 · 물리 스위니 외 다수

연출가 소개

집요한 인간에 대한 탐구로 치밀한 연극작업을 수행하는

연출가 이성열 (1962 ~)

한국 연극계의 대표 중견 연출가인 이성열은 1998년 <굿모닝? 체홉>으로 백상예술대상 '신인연출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체홉의 현대적인 재해석에 일가견을 보여 온 이성열 연출은 '인간사회에 대해 끝없이 고민하지만 결코 심각하고 무겁지만은 않은' 작품을 선보여 오며, 그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사회 현실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는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세대 간의 갈등과 엇갈리는 사랑을 사실적이면서도 낯설게 표현 할 예정이다. 서울연극제 연출상, 김상열 연극상 등을 수상했다.

주요작품

바냐아저씨 · 과부들 · 봄날 · 여행 · 그린벤치 · 굿모닝? 체홉 · 키스 · 미친극 · 야메의사 · 날아다니는 돌 · 즐거운 복희 · 죽음의 집2 · 자객열전 외 다수

토론

5. 투르게네프로 대표되는 러시아 문학의 사실주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나?

활동

5-1. 투르게네프는 처음으로 발표한 <스포츠맨의 스케치>에서 농노들의 고된 삶을 다뤘는데, 지주를 비난받아야 할 캐릭터로 그렸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그는 봉건영주처럼 권력을 휘두르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실제로 집안의 하인들이 구속에서 벗어나도록 조치했다. 작가 자신의 삶이 작품세계와 맞닿아 있는 모습에 대해 바람직한 예술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보자.

- 5-2. “니콜라이와 빠벨, 바실리 등 아버지들과 아르카디, 바자로프의 닳은 점이 미묘하게 드러난다. 희곡에서 프리엘은 이들의 ‘다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들 사이의 ‘닳음’을 찾고 있다”는 이성열 연출의 언급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보자.

토론방향(안)

1. 브라이언 프리엘의 <아버지와 아들>은 줄거리는 원작을 따랐지만 사실 새로 쓴 작품이나 다름없다. 원작은 아버지와 아들 세대의 갈등을 자세하게 다루면서 당시 러시아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반면, 희곡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다소 축소되는 대신 보다 더 보편적으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럼으로써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관객들이 더욱 공감하면서 작품을 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의 체홉으로 불리는 프리엘은 원작을 따르면서도 작품에 체홉의 향기를 가득 담았다. 원작은 목가적, 낭만적 특징이 강한 반면 사소한 일상들을 아주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이렇듯 '일상'에 방점을 두게 되면서 체홉적으로 극화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익숙한 일상을 낯설게 보게 만드는 체홉의 향기가 브라이언 프리엘의 작품에서도 느껴지는 이유다.
2. 바자로프와 빠벨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불편한 기운은 감지했다. 빠벨은 바자로프의 거만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바자로프는 빠벨의 전형적인 귀족주의가 눈에 거슬렸다. 이 둘이 결투에 이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빠벨과 페니치카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빠벨은 동생 니콜라이와 신분은 다르지만 함께 지내며 아이를 낳은 페니치카를 꽤 괜찮은 여성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동생의 부인으로 합당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괜찮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 젊고 아름다운 페니치카를 여인으로써 좋아했던 마음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빠벨이 페니치카를 사랑했다기 보단, 페니치카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지난날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유부녀 공작부인)을 떠올렸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던 바자로프가 페니치카에게 키스하는 장면을 보자 결정적으로 이성을 잃고 바자로프에게 결투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이 결투는 큰 상처를 남기며 빠벨과 바자로프가 모두 니콜라이의 농장을 떠나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적대적이기만 했던 두 남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극 중 바자로프는 '니힐리스트는 가혹하고 외로운 삶을 견뎌내야 한다'고 말한다. 젊은 세대는 언제나 안정보다는 개혁을 추구하기 마련인데, 19세기 당시 러시아는 특히나 개혁이 태동하고 있던, 그래서 더 큰 개혁의 가능성이 존재했던 시기다. 그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개인의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보다는 사회 개혁에 더 가치를 두며, 바자로프와 같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하는 인텔리겐치아가 출연했다. 이들은 정체되어 있는 구식의 사회를 바꾸길 원했고, 기존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니힐리즘과 같은 사상에 몰두하게된 것이다. 니힐리스트들은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는데, 시간이 흐르며 급진적인 혁명주의자로 인식되게 되었다.

4. 바자로프는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안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용기내서 안나에게 고백했지만, 안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안나는 이미 자신보다 20년 이상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생활을 해보았다. 결혼하기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형편은 결혼 후 남편이 많은 유산을 남기고 죽음으로써 단번에 해결되었다. 그런 안나는 질서, 안정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 그러한 삶의 테두리 안에서 일종의 '위안'을 얻는다는 안나에게 사랑이란 낭만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녀의 안정적인 삶을 해칠 수 있는 위협요소로 간주되었을 수 있다. 극 중 바자로프가 죽은 후에 그와 결혼했어야 한다고 빠벨에게 이야기하지만, 변화를 추구하는 바자로프와 안정을 포기할 수 없는 안나가 엮일 수 없었던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어 바람직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5. 산업혁명에 힘입어 과학이 발달하고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들에 따라 현실에 대한 관찰과 경험을 추구하게 된다. 투르게네프는 <아버지와 아들>에서 니힐리스트 바자로프를 등장시키며 당시 보수와 진보 양측 진영에서 모두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다. <스포츠맨의 스케치>에서 농노들의 고된 삶을 다루고, <사냥꾼 일기>라는 작품에서는 농노들의 삶을 그리며 농노해방을 주장했다. 농노해방은 당시 러시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투르게네프는 이러한 주제를 문학작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단순히 당시의 모습을 글로 옮겼다고보다는, 보다 비판적인 관점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투르게네프는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에 있어 대표적인 작가로 꼽힌다.

※ 토론방향(안)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여러 답안 중 한 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토론자들이 자유롭게 가능한 답안을 제안하는 것이 좋음.

참고자료

Three Days In The Country by Patrick Marber, a version of Turgenev's *A Month In The Country*/National Theatre/Brochure



국립극단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명동예술극장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대표번호 . 1644-2003

www.ntck.or.kr

www.mdtheater.or.kr

www.facebook.com/ntckall

www.facebook.com/myeongdongtheater